



문화매일신문



전남도, 스마트농업·고소득 시설작물 육성에 600억

아열대작물 생산 중심지 목표...스마트팜·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전라남도는 올해 스마트농업 확산 및 시설원예·과수산업 육성을 통한 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3개 분야 24개 사업에 600억 원을 지원, 아열대작물 생산 중심지로 우뚝 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열대 과수, 기능성 채소를 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고, 스마트팜(지능형농장) 설비 보급으로 노동력을 절감해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고소득 시설원예 품목의 단지화·집단화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11ha에 51억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팜 확대 보급을 위해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지원에 39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여기에 노후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한 시설원예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 83ha에 35억 원, 중소농 원예특화작물 생산기반 구축사업 36ha에 87억 원, 딸기 생산시설현대화 사업 53ha에 23억 원 등 시설원예 분야 9개 사업에 총 332억 원을 지원한다.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 분야는 다중보온커튼 등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55ha에 56억 원,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시설 4ha에 37억 원, 기름 난방을 가격이 저렴한 전기난방기 등으로 대체하는 생산비 절감 사업 13ha에 10억 원을 배정했다.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34억 원, 과수 재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과수 생산기반 구축 등에 39억 원을 투입하고 매년 발생하는 서리, 냉해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 예방시설 50ha에 10억 원 등 과수 분야 4개 사업에 총 74억 원을 보탠다.

정관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이 아열대작물 전국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과 에너지절감형 시설 등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중배/기자

경북도, 바이오산업 미래 주도권 확보 위한 기틀 다진다!

경상북도는 팬데믹 이후 건강, 식량, 기후 문제 등에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의 미래를 위한 기반 조성 과 기틀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한다.

정부 국정과제에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 포함되고 미국과 바이오 경제 활성화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 3월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등 6개 분야에 2026년까지 총 550조원 투자 유도 계획을 발표하는 등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에서는 바이오산업의 주요 전략 요충지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제약, 그린바이오, 뷰티산업 등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으며, 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바이오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있다.

◇ 신규사업 확보와 기반 조성으로 지역특화 제약·바이오 융합형 산업 육성

경북도는 지난해 3월 안동이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선정됐으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속한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백신 항원 라이브러리 생산·비축을 담당할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협력 기반 구축을 위한 말레이시아 Pharamianga, 태국 NVI와 연계한 공동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남아 바이오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문 백신인력양성을 위해 구축 중인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센터('22~26, 240억원)가 WHO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에 선정('23.7.)되어 지역 캠퍼스를 운영한다.

안동에서는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와 연계한 백신 관련 연구소와 기업, 경북형 백신산업 지원 인프라를 통해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백신 인프라와 연계한 아프리카 등 제3지대와 동남아시아 해외 인력양성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포항은 포스텍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 연구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혁신연구센터(IRC, Innovation Research Center) 공모에 포스텍 '바이오미래 기술혁신연구센터'가 선정됐다.

2023년 2월까지 10년간 총사업비 577.5억원(국비 487.5억원)을 지원받아 첨단 바이오(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특성화 기술 기반의 개방형 융합 연구를 추진한다.

또한, 대형장비(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 등)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 분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인프라 확대와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국가거점으로 지정된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23. 2.) 등을 통한 그린바이오 신산업 분야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뷰티·의료기기 산업 구조 고도화 지원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북도와 대구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밸류체인 컨버전스 사업은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원료부터 수출까지 뷰티산업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뷰티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44개의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에 소재한 6개의 뷰티산업 관련 기업을 공모 선정하여 지난 7월 '2023 비엠티뷰티 & 코스모뷰티 베트남'에 참가 지원해 총 63건(227만 달러)의 수출 상담을 통해 현지 기업과 5만 달러 구매의향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동남아 위주의 수출 지원에서 미주, 유럽 시장으로 판로 개척 지원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보건·복지 증진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재활기기 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91억원(국비 39억원)으로 'ICT융복합 어린이 재활기기 실증센터'를 구축하며 어린이들의 선·후천적 기능 저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한 재활기기 분야의 시장 진입 및 확대 등으로 지역 재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바이오산업의 점진적 혁신 및 도약의 발판 마련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되는 2024 경북 바이오산업 엑스포는 9월경 안동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한다. 기업부스, 기업상담회, 포럼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경북 바이오산업에 대한 홍보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련 기업·기관의 참여 확대와 교류 활성화로 바이오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미래 신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따라 바이오 신산업을 발돋움시켜 제조 산업의 기반을 새롭게 다져 우리 경북의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이끌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불가역적인 일. 함께 힘 모아 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1일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새해 첫 기자회견을 북부특별자치도를 주제로 했다. 경기도는 비전과 발전계획을 만들고 주민간담회와 토론회, 여론조사, 중앙정부에 주민투표 의뢰 등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며 "이것은 불가역적이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까지 했던 일들은 차곡차곡 좋은 자산이 되고 있다. 경기도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경제위기 속에서 중요한 두 가지로 '정책'과 '기업가정신'을 꼽으며 "정책과 관련해 경기도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그 방향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면서 "경기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6.8%에 이른다. 중앙정부 증가율의 거의 2.5배를 늘렸다. 이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 경제인 여러분들이 마음껏 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업가정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기업들에게는 위기가 기회다. 어려운 상황을 잘 활용해서 도약하셨으면 좋겠다.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는 경제인과 기업인들도 제법 있으실 거다. 반드시 기회가 올 테니 살아남으시길 바란다"며 "애로사항이 있으면 경기도나 산하기관에 말씀해주시면 힘을 보태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향한 소신에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들도 협력을 다짐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워서 경기도와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한 김동연



김동연 지사, 11일 '경기북부상공회소 신년인사회' 참석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1월에도 북부상공회의소를 찾아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가 북부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었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최근 수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동근 의정부시장,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시장,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 김덕현 연천군수, 심상금 연천군의회 의장,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기업인 등 200여 명의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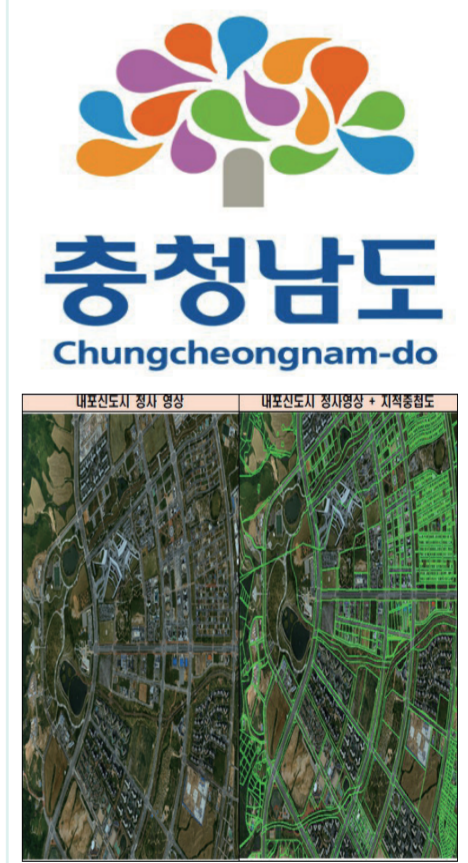
경기도는 매년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에 도지사,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 등이 참석해 해해 경기도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과 도정 가치를 설명해 왔다. 올해 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1월 2일을 시작으로 18일까지 17일간 도내 22개 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김법삼/기자

자리를 함께한 김민철, 최영희 국회의원도 이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은 불가역적인 일. 함께 힘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김법삼/기자



서울시, 서울백병원 중앙정류소 혼잡 해소 대책 마련·시행

1월 11일 17시부터 서울백병원 광역버스 정류소에 계도요원 2명 즉시 투입

서울시가 인파 밀집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관내 주요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완화를 위하여 계도요원을 배치하고 정류소를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대안 마련에 나선다.

우선 시는 교통심 형태를 버스 승차 가능 면적이 160m²에 불과하나 광역버스 노선은 28개에 달하는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중앙버스전용차로)에 1월 11일부터 퇴근시간(17~21시)에 계도요원 2명을 즉시 투입한다.

이들 계도요원은 승차질서 관리, 차도 승차 방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또한 경기도, 중구청과 협의하여 '남대문세무서, 서울백병원' 정류소 건너편에 가로변 정류소를 신설(가칭, '명동성당' 정류소)하고 광역버스 노선 10개를 분산 배치하여 정류소 인파 밀집도를 완화할 예정이다. 관계기관 협의, 2주간의 대시민 홍보기간을 거쳐 2월까지 정류소 설치를 완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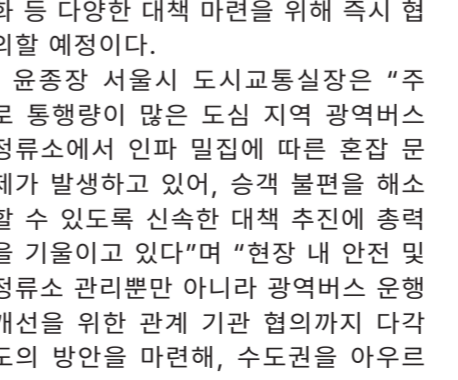
신설 예정인 가로변 정류소와 접한 차도는 현재도 안전지대로 차량 통행이 제한되고 있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버스 정차에 따른 도로 혼잡 심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기도 및 운수업체와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남역, 사당역 등 주요 광역버스 정류소의 혼잡 관리를 위한 정류소 용량 증설, 광역버스 노선 조정, 지역 대중교통과의 환승체계 강화 등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즉시 협의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주로 통행량이 많은 도심 지역 광역버스 정류소에서 인파 밀집에 따른 혼잡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승객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내 안전 및 정류소 관리뿐만 아니라 광역버스 운행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해, 수도권을 아우르

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현장 찾아 발로 뛰는 경북도의회,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 전개

도내 18개 출자·출연기관 등 대상, 정책지원담당관실 6개팀 32명 활동

경상북도의회 정책지원담당관실은 의정활동 지원 전문화를 통한 의회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산림자원개발원, 안동소방서, 119특수대응단을 시작으로 도 출자·출연기관 등 18개 기관(19개소)을 방문한다.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정책지원관들이 도 출자·출연기관 등 도정 주요 사업현장을 찾아 업무현

황을 점검하고 운영상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의 답을 찾고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통한 정책화·전문화된 의정활동 지원으로 자치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1.13.시행)으로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

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신설된 이후 2022년부터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된 6개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열린의회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시작으로 자치입법,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종합적인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정책지원 전문성을 한층 더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중수 의회사무처장은 "지방의회가 지방시대 자치권원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강화된 정책역량이 요구된

다. 이번 찾아가는 입법지원활동을 통한 현장중심의 보다 전문화된 의정활동으로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현안 문제와 도 산하기관 운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외부의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책지원관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경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올해 공동주택 입주 쏟아지는 '에코델타시티 학교 문제' 쟁겨 정책간담회 주재, 교육청 학생배치팀장,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등 참석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북지 환경위원회, 강서구)이 9일 16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학교설립 계획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의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시교육청 학생배치팀장,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관리팀장, 담당 주무관, 시의회 정책지원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교육청이 수립한 학교 설립 계획이 입주예정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간담회로, 이종환 의원 주재로 진행됐다.

이종환 의원은, "당장 3월부터 공동 7블럭을 시작으로, 공동21블럭에도 공동주택 입주 시작된다. 이에 따라 무려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입해 올 텐데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설립은 내년이나 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지원과장은 "입주가 올해 3월부터 시작됨에도,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는 내년부터 설립이 완료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 임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배치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계획을 청취한 이종환 의원은 임시배치 학생들의 통학편의와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계획'을 묻고 버스 규모(45인승, 25인승 등)와 대수, 운행횟수를 챙겼으며, 향후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 계획이 유동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시교육청에 주문했다.

이 의원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공동주택 입주는 한두해로 끝나지 않는다. 확정된 입주계획만 보더라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10개 공동블럭에 1만 세대에 가까운 세대가 입주할 예정인데, 이에 대비하여 시교육청은,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

교를 설립해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행정과장은 향후 학교설립 계획을 설명하며, 설립 일정대로 빈틈없이 쟁겨나갈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이종환 의원은, "현재 시교육청의 학교설립 계획은 입주세대수에 학생유발계수를 기계적으로 곱한 산식에 근거한 것이기에, 실제로 부산에코델타시티 입주가 본격화되면 실제 학생 수가 시교육청의 예상 학생 수를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시교육청은 이에 대비하여, 학교 증축계획 또한 함께 수립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부산에코델타시티 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신설이 아닌 분산배치를 하라는 것이 현재 교육부의 입장이나, 시교육청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반드시 설득해줄길 바란다."라고 주문하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

김희태/기자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제6회 정명(의정) 대상 수상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지난 1월 11일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주최한 제6회 정명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정·명(正·明) 대상은 정의롭고 공정하며 밝은 사회를 위해 활동한 개인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부여하는 상으로 전 부의장은 지난 2023년 전남도의원으로서 도정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라남도 공공심아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및 '전라남도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전라남도 교육청에 대한 도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오류를 지적하며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전 부의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대한 보답으로 정명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 같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전남도의 발전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낮은 곳에서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전경선 의원은 지난해 전라남

도의회 부의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도정 현안 사항에 적극 앞장서며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로 대한민국주민자치대상 '특별공로 최우수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박종배/기자



하남시의회 "집행부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및 의지 턱없이 부족"

강성삼 의장 "기후위기 대응위해 지자체 역할 중요,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할 때"

시민단체 조사 결과,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남시의회가 지난 12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 대응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견집을 내놨다.

14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인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이 최근 발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2년 12월~2023년 11월)'를 검토·분석하고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설치·운용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며,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시의회 의원들과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탄소중립 정책 수립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고, 탄소중립 실천활동의 다양화 추구하고 민·관역량강화 및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과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법제도 개선, 기본계획수립 등으로 탄소중립·에너지전환을 위한 이행 기반이 구축되고 있지만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 부문과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은 등 하남시의 기후대응 정책 의지가 낮다"고 지적하며 "하남시의 기후위기 정책 변화가 절실한 가운데 이현재 하남시장과 하남시의회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행정적, 입법

적,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하남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 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전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지자체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가운데 전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앙'에 이르고 있어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전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성삼 의장은 "우리 하남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기에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하남시의회가 시민단체와 하남시,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항상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 정혜영, 최준중, 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과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범삼/기자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5회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북부녹색어머니회 청소년 자녀 14명 대상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2일 북부녹색어머니회 소속 회원 자녀 14명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의의회에 참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북구의회 견학에 이어 북구의회 교육영상 시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3분 자유발언 등 본회의 전반의 절차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했다.

이어진 본회의 3분 자유발언에서는 공부와 성적 위주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진솔한 심경을 토로했으며, 안전하고 즐거운 놀이 환경 유지를 위한 놀이터 등에 대한 시설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규칙안', '전동킥보드 사용 시 지켜

야 할 규칙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수 의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국가를 이끌어 나아갈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이다"며 "오늘 모의의회가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우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임성경 청소년보호책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광고국: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힐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 세계경제올림픽 '다보스포럼' 참가 위해 13일 출국

글로벌 정상급 인사, CEO 등과의 교류로 기후·경제·투자유치 등 분야별 실질 협력 강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포럼) 참가 등을 위해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동연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이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 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은 국내 지자체장단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

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비공개 토론(주제: 경제균열 방지)을 벌인다.

김동연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융합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관하는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 다양한 세션 등에도 참여해 탄소도시를 주제로 도시개발과 재생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리러청(李樂成) 중국 라오닝성 성장,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독일 머크사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

역인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해 초 올 한해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보스포럼 참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각국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글로벌 CEO 등과 양자면담을 통해 교류관계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라고 이번 방문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관련 정담회 개최

의왕시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물 예산확보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 힘, 의왕 1) 11일 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확충 관련 논의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의왕시청 이은혁 교통정책과장, 김기호 팀장, 김찬구 주무관, 이참석하여 학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예산을 학교주변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안 정담회 개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현안 정담회 개최"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0일 경기도의회에서 무한돌봄센터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무한돌봄센터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과 함께 개최하고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업회장, 황산 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장, 김도록 사회복지법인 휴먼복지회 이사장, 박양숙 북부무한돌봄행복나눔센터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21명이 참석했다.

무한돌봄센터는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조례에 근거하여 시·군에서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민·관 협력으로 지역단위 보호망을 조

정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을 운영하고 있다.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정담회에서 무한돌봄센터와 네트워크 팀 개념이 모호하고, 네트워크 팀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시·군에서 네트워크 팀을 위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법인 전입금을 요구하는 문제, 네트워크 팀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하면서도 이에 합당한 처우가 제공되지 않는 문제 등을 개선해 달라고 했다.

사례관리와 직접적인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확장형 네트워크 조직 관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해 엑셀로 회계 관리를 하고 있으며,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아

울러 센터장이 사실상 시설장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팀장급의 대우를 받고 있어 대외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네트워크 팀에 소속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도 다른 복지관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운영이 어렵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날 정담회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지역사회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무한돌봄센터 관계자들에게 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운영 지침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향후 정담회를 추가로 개최하여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무한돌봄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 영화 '길위에 김대중' 영화 개최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고군분투와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도민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



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길위에 김대중'은 '청춘 선거'와 '노회찬 6411' 등 주로 정치인물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민환기 감독의 신작이다.

영화는 청년 사업가 출신의 김대중이 갖은 고초를 겪으며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1987년 대선 후보로 나서기까지의 이야기를 영상에 잘 그려냈다. 영화 안에는 사상 최초로 공개되는 미공개 영상 및 자료들과 그와 역사적 순간을 함께 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길위에 김대중'은 국내 개봉에 맞춰 해외 15개 국가 30개 도시에서 상영이 된 후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날 영화상영회에는 '길위에 김대중' 제작진들도 특별히 참석하여 인사를 건넸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경기도의회 기념사업준비위원회(위원장 박옥분, 수원2) 주관으로 12일(금) 롯데시네마 광고야울렛 1관에서 '길위에 김대중' 영화 상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화상영회는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김대중 대통령의 민주주의를 향한 필사의 노력과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도민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

임광현 경기도의원, 가평 예술·문화 지원 방안을 위한 간담회 개최

임광현 경기도의원, "지역문화재생사업 방안 모색하자"

경기도의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은 12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가평문화예술단체 쥬네스(대표 김지숙), LBMA STAR(대표 토니권)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가평지역의 예술·문화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색적이고 차별화된 지구 환경 프로젝트 공연행사를 진행해 새로운 공연문화의 모범사례를 가평군에 접목, 각종 규제에 어려운 환경 속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한 도시로 지역사회 관광 발전과 지역축제·문화에 대해 논의 했다.

임광현 도의원은 "축제와 공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창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중요하며 우리 지역의 문화 재생이 시급한 것 같다"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마련과 함께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차량지원 기증식 가져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파주1)은 10일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의 접근성 향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차량을 지원하는 장애인차량 지원 기증식을 가졌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 내 사회복지 현장에 차량을 지원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과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2021년부터 매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에는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지원 접수 총 302개 시설 중, 최종 50개 시설을 확정하고 7월부터 공모에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총 약 11억 원으로 승합차 24대, 경차 26대이다. 22년에는 40대 지원모집에 총 117개 기관이 신청해 2.9: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2024년부터 장애인 기회 소득 및 지원 대상도 확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현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하고, "지원된 차량이 그동안 이동에 불편을 겪은 이웃의 든든한 발이 되고 복지시설의 서비스 전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해바라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량 기증식에는 고준호 경기도의원, 최세웅 센터장, 시설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기흥평생학습관 '제9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오는 16일부터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총 36개 강좌 · 454명 모집

용인특례시는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기흥평생학습관 '제 9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가정에서 즐기는 홈베이킹' 등 조리 분야 5개 ▲'의류 업사이클 리폼 과정' 등 기술 실용 분야 6개 ▲'스마트폰으로 나만의 영상 만들기' 등 정보화 분야 5개 ▲'공경매 절차 및 권리분석' 등 인문교양 분야 4개 ▲'손글씨 디자인 캘리그래피' 등 문화예술 분야 9개 ▲'제빙기능사' 등 자격취득 분야 7개 강좌 등 총 36개 강좌에 454명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용인특례시민'이다.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둔 기업의 직장인과 재외국민, 결혼이민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정기교육 12주, 장기교육 20주 과정으로 오는 29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수강료는 강좌 기간과 시간에 따라 3만원부터 15만원이며,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접수방법은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모바일 가능)하면 된다. 교육생은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고, 추가 모집 기간 중 개강 과정의 잔여분에 대해서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시 관계자는 "기흥평생학습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용인특례시 2024 기흥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안내 제9기

구분	정기교육 (12주)	장기교육 (20주)
교육기간	2024. 1. 29.(월) - 5. 3.(금)	2024. 1. 29.(월) - 6. 28.(일)
신청기간	2024. 1. 16.(화) 10:00 - 1. 18.(목) 18:00 / 7일간 * 수요일 오전 10:00 - 12:00	2024. 1. 22.(화) 14:00 - 1. 24.(목) 18:00 / 3일간 * 연휴 시 휴무 - 신청 날 7:00 ~ 9:00
신청장소	2024. 1. 22.(화) 14:00 - 1. 24.(목) 18:00 / 3일간 * 연휴 시 휴무 - 신청 날 7:00 ~ 9:00	2024. 1. 29.(월) 10:00 - 2. 5.(일) 18:00 / 8일간 * 수요일 휴무 - 신청일 10:00 ~ 12:00
신청방법	기흥평생학습관 홈페이지(www.yongin.go.kr) 또는 방문접수	

문의: 용인특례시 기획조정실(031-326-2763), 182(민선)행정지원과(031-326-2763) 또는 평생교육과(031-326-2763) | 팩스: 031-326-4999 | E-mail: ghp@yongin.go.kr

안양시, 상인·고객 더욱 편리하게...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 문 열어

안양시, 11일 개소식...사무실·수유실·탕비실 등 갖춰

평촌역 상가 상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안양시는 전날 오후 5시30분 동안구 부림동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돼 도비 4억1,200만원을 확보해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변화하는 소비 경향에 맞춰 시설을 현대화해 상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다.

시는 총 5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객지원센터 매입과 리모델링을 완료했으며, 상인과 고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수유실, 탕비실 등을 갖췄다. 고객지원센터는 향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개최할 각종 행사 공간으로도 활용될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최태호 안양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안양시의원,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동철 평촌역상가연합회 회장은 "평촌역 상가 고객지원센터를 상점가 이용 고객의 편의 공간 및 상인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며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호 안양시장은 "상인과 고객의 소통창구 역할을 비롯한 교류의 장으로서 상점가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며 "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2024년 농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접수

안산시는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을 확산·보급하기 위해 '2024년 농업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2월 6일까지 신청받는다

사업대상자는 분야별 선정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농업 새기술 보급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기술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부/기자

대상자는 분야별 농사를 짓는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및 안산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2월 6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지원과 및 대부영농상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여주시, 2024년 찾아가는 배달강좌 '다·배움' 학습자 및 강사 모집

핑동! 학습을 배달해 드립니다.



2024년 여주시 시민맞춤형 평생학습프로그램 '다·배움' 학습자 및 강사 모집 공고

배달강좌 '다·선생', 모집	배달강좌 '다·배움', 모집
신청기간 (1차) 2024년 1월 20-25일 (2차) 2024년 4월 20-25일 (3차) 2024년 7월 20-25일	신청기간 (1차) 2024년 2월 1-10일 (2차) 2024년 5월 1-10일 (3차) 2024년 8월 1-10일
신청자격 -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자 - 해당분야 강의경력 1년 이상인 자	신청자격 여주시민 또는 관내 기업체 근로자 7년 이상 구상된 학습요망
신청방법 여주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공고문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후 방문(평일 17시까지) 및 이메일 제출	

추가 문의사항: 배달강좌 운영 담당자 | 031-887-3323

참가여부, 학습대상으로 나누어 회차마다 비중을 달리 두어 형평성에 맞게 선정할 계획이다. '다·선생' 모집기간은 1월/4월/7월 중 20일부터 25일까지고, '다·배움' 학습자 모집기간은 2월/5월/8월 중 1일부터 10일까지다. 배달강좌를 희망하는 학습자는 여주시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다·배움' 프로그램 현황(강사풀)을 참고하여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미등록 강사를 희망할 경우 강사가 직접 여주시평생학습센터에 배달강사 '다·선생'을 등록한 후 희망강사를 선택하면 된다.

여주시 찾아가는 배달강좌 '다·배움'은 꾸준한 신청 수요 증가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강좌수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할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광주시 방세환 시장, 민생현장에서 답을 얻다

방세환 광주시장이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생현장을 찾았다.

12일 시에 따르면 방 시장은 이날 민생현장 첫 행보로 오후1동에 위치한 '식판 천사'를 방문했다.

이 업체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혹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방 시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근로

자들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 듣고 기존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해 현장 중심의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민생현장 방문은 '희망도시 행복광주' 달성을 위한 5대 시정 목표인 교통(보건소 버스정류장), 교육·문화(퇴직청소년문화의 집), 경제(혁신중합주방(중소기업), 복지(광주시장애

인보호작업장), 지속가능발전(식판천사(사회적기업))에 부합하는 민생현장을 대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방 시장은 "평소 민생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새로운 도약의 지속가능한 도시의 건설을 위해 소속 직원들에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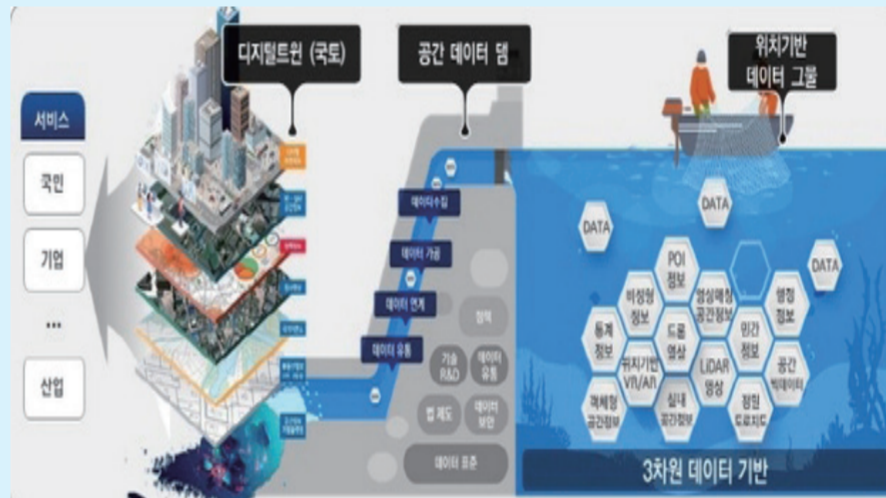
김범상/기자



미래도시의 새로운 지평, 이천시 청룡의 해 스마트도시로 비상하다!

이천, 농촌의 정겨운 이미지로 기억되던 도시가 지금은 미래도시로 기개를 떨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첨단 미래도시추진단을 개설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하며, 최첨단 기술을 통한 지역발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기 위하여 미래도시를 설립하였다.

이천시는 금년에 디지털 트윈국토 조성, 드론 분야에서는 공약사업인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부활역세권 내 미래도시체험관 추진과 연계



미래도시의 새로운 지평, 이천시 청룡의 해 스마트도시로 비상하다!

3차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국민, 기업, ... , 산업

디지털 트윈 (국토), 공간 데이터 형, 위치기반 데이터 그물

데이터, DATA, DATA, DATA

통계 정보, 도시 정보, 공간 정보, 환경 정보, 사회 정보, 문화 정보, 안전 정보, 건강 정보, 교육 정보, 복지 정보, 기타 정보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는 공약사업인 로봇드론 창업지원센터를 부활역세권 내 미래도시체험관 추진과 연계

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군부대와 드론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드론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이천시 드론 문

김범상/기자

정조대왕과 관련된 수원지역 지명의 유래를 소개합니다

수원시,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해'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제작

수원시와 의왕시의 경계에 있는 '지리지대개'의 이름에는 정조대왕의 효심이 담겨있다. 정조는 아버지 묘소를 참배한 후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고개에 올라 묘역을 계속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에 행차가 늦어져 고개 이름에 더할 지(遲)가 들어간 '지리지대개'로 불렸다.

수원시 박물관사업소와 국토지리정보원이 협업해 정조대왕과 관련된 수원지역 지명의 숨은 이야기, 유래를 소개하는 홍보물 '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를 제작했다.

정조 임금이 팔달산에 올라 수원의 경치를 감상하던 중 있던 산을 보고, "이 산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산이니 모두 숙지(熟知)하자"는 의미로 '숙지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이야기 등 지리지대개, 대유평, 솔대, 일림동, 동말, 만석거, 샘내 등 정조대왕과 관련된 수원지역 지명의 유래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에는 지명과 관련된 퀴즈, 국

토지리정보원의 역할을 소개하는 글도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홍보물을 기획·제작했고, 제작 비용을 부담했다. 수원시는 내용을 검토하고, 구성 관련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총 9000부를 제작해 8000부를 수원 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역사·민속 문화 등을 담고 있는 문화유산인 지명에는 지역이 품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있다"며 "'정조 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가 수원시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정조대왕과 관련된 지명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정조임금과 함께하는 수원 지명 이야기

QUIZ

지명 유래 O, X 퀴즈

Q1. 일평을 읊에 읊어주는 관음사는 유래가 있다. O X

Q2. 숙지산이란 이름은 정조 임금이 어진에서 경치를 감상하던 중 지명이다. O X

Q3. 이곳은 정조 임금의 묘역이 참배한 후 한양으로 돌아가던 중 고개에 올라 묘역을 계속 뒤돌아보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에 행차가 늦어져 고개 이름에 더할 지(遲)가 들어간 '지리지대개'로 불렸다. O X

Q4. 정조 임금은 수원시에 25세에 간직하고 수원화성과 화성박물관을 지었다. 수원으로 행차하며 아버지 제왕릉을 숭배하며 수원에서 수원행차 때의 정조 임금과 관련된 지명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O X

Q5. 정조 임금은 수원시에 25세에 간직하고 수원화성과 화성박물관을 지었다. 수원으로 행차하며 아버지 제왕릉을 숭배하며 수원에서 수원행차 때의 정조 임금과 관련된 지명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O X

Q6. 정조 임금은 수원시에 25세에 간직하고 수원화성과 화성박물관을 지었다. 수원으로 행차하며 아버지 제왕릉을 숭배하며 수원에서 수원행차 때의 정조 임금과 관련된 지명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O X

정조산천, 숙지샘내, 동솔호왕, 말대유평

국토지리정보원,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

하남시, 디지털도서관 실감콘텐츠 체험실 운영

실감콘텐츠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최신 디지털기술 체험의 기회 제공

하남시가 올해부터 디지털도서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실을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실감콘텐츠 체험실은 디지털도서관 2층 멀티미디어실 내에 있으며, 다면 프로젝션 맵핑 및 동작 감지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실감콘텐츠를 즐기는 공간이다.

실감콘텐츠 체험실은 ▲체험자가 동화 속 주인공이 돼서 미션을 수행하는 E-스토리북 ▲직접 채색한 이미지를 스캔해 스크린에 투영하는 AI-AR 스케치존 ▲하남시립도서관 소개 ▲정보 지식놀이 콘텐츠 등 다양한 실감콘텐츠로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남시립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전화 사전예약 또는 현장 접수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14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고 휴관일인 금요일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도서관에 실감콘텐츠 체험실이 구축되어 시민들에게 실감콘텐츠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다양한 디지털 기술 체험의 기회를 누리도록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4.57% 할인

2000cc급 신차 승용차의 경우 2만2850원 '절세'

성남시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미리 내면 4.57%를 할인받는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연납 신청 접수는 일 년에 네 차례 이뤄져 3월 3.75%, 6월 2.51%, 9월 1.25%의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1월 할인이 제일 높다. 배기량 2000cc급 신차 승용차(자동차세 50만원 가량)의 경우 이달 안

에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면 세액의 4.57%를 공제받아 2만2850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전년도 연납 차량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를 미리 낸 이후에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면 매도일 또는 폐차 말소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각 구청 세무

과 시세팀으로 한 뒤 할인을 적용된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1월 연납 세액 공제율은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점차 축소해 ▲2020년 10% ▲2021~2022년 9.15% ▲ 지난해 6.4% ▲올해 4.57% ▲내년 2.74%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화전보도육교 철거...19일 중앙로 일부 구간 교통 통제

17~19일 철거공사...19일 새벽 1시 30분 차량 전면 통제

고양특례시가 17일 화전보도육교 철거공사로 '2024년 안전 최우선 도로 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이용률이 낮고 사용 기간이 30년 이상이 지나 낡은 화전보도육교 철거를 결정했다.

결정에 앞서 지역 여건 및 주민 의견을 존중하고자 설문조사 및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성이 78.3%, 일평균 이용자가 9명으로 나타나 철거 결정을 뒷받침했다.

시는 화전동 중앙로에서 이루어지는 철거 공사인 만큼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관할 경찰서와 협의해 1월 17일 ~ 19일 까지 3일간 야간공사를 시행한다.

특히, 육교 상부 인양은 버스 운행 시간을 최대한 피해 1월 19일 오전 1시 30분에서 2시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약 30분간은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시 관계자는 "화전보도육교 철거 공사에 대하여 TBS교통방송 안내, 도로 전광판 공사 문구 표시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화전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중앙로 통행의 불편이 없도록 통제 구간과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영기/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CES 2024 참여.. 투자유치 보폭 넓혀

정명근 화성시장이 반도체와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는 화성시의 '20조 투자유치'를 위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4에 참여해 직접 세일즈에 나섰다.

현지시간으로 9일부터 12일까지 열린 CES 2024는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지속가능성, 로봇, 생성형 AI, 푸드테크, 메타버스 & 블록체인을 주요 키워드로 세계 각국의 최신 미래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규모의 IT 종합전시회로, 전 세계 4,000개사 이상 기업이 참여했다.

시는 지난해 첫 참관단 파견 후 올해 공동관 참가기업 5개사를 비롯해 시유망 수출기업 43개사와 화성시 수출업무지원센터, 화성산업진흥원 등 총 7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규모의 참관단을 꾸렸다.

먼저 9일 정 시장과 참관단은 미래기술과 CES 전시 안내를 맡은 LIFESQUARE의 최형욱 강사에게 참관 방법 등 사전안내를 포함한 세미나 후 지난 해 우호결연 협약을 맺은 조지엔美 토론토 시장 및 기업인들과 함께 사전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43개 참여 기업을 소개하면서 정 시장은 "화성시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수많은 관련 기업이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며, "토론토와의 우호결연이 경제적 교류로 더욱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후 10일 정 시장은 CES 베네치안 엑스포 내 유레카관, TechWest관 등을 찾아 전자부품 기업 (주)파트론 및 2024 CES 혁신상 3관왕을 차지한 백내장 수술기구 생산기업 (주)티아이, 마찬가지로 혁신상을 수상한 재제조 EV 배터리 서비스 기업 (주)포엔 등 화성시 참가 기업부스에 방문했다.

정 시장은 부스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금번 CES 참여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화성시가 기업들과 함께 미래산업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기업들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정 시장과 참관단은 LVCC Central Hall로 이동, 넷플릭스, LG전자, 파나소닉, 삼성전자 등 첨단기업들의 전시관을 방문해 글로벌 유망기업의 최신 기술 동향과 현지 시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고, 11일에는 LVCC NORTH HALL에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LG이노텍 등 기업들을 방문해 참관을 이어가고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한편, 화성시는 민선8기 내 '20조 투자유치'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해 현재까지 기아 오토랜드 화성 EV전용공장 1조 원 및 삼성전자 HPC센터 약 1조 5,000억 원, 네덜란드 반도체 기업인 ASML, ASM 등 이미 7조 5,261억 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2024년 새해에도

청송군의회의는 군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일하며 섬기는
청송군의회
CheongSong County Council

군민과 함께하는 **청송군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청송군의회** 홈페이지 <https://council.cs.go.kr>

신안 가거도 나한송 국가보호종 지정 추진

수령 274년 된 나한송 가거도 회룡산에 자생



및 보호수 지정 추진 계획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안군에서는 가거도, 흑산도, 증도, 압해도 등 4개 지역의 5개 장소에서 나한송을 확인했다. 가거도 회룡산 나한송은 1988년 최초로 조사됐으며, 그 당시 목포대학교 김철수 교수는 이를 희귀 수종으로 국가 보호수종 지정을 언급했다. 연구 결과, 나한송 어린 개체는 31개체가 확인됐으며, 성장 길이는 10cm에서 115cm까지 다양했다. 이는 지속적인 나한송 종자 유입의 증거로, 적극적인 보전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가거도 회룡산 능선 주변에서 자생하는 나한송의 수령이 최소 236년에서 최대 274년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는 국내 자연 상태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나한송으로, 약 250년에서 270년 사이의 수령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나한송은 단순한 생태적 가치를 넘어서 우리 역사의 소중한 증언자로 여겨진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현재 가거도 나한송의 보전과 연구는 단순히 자연유산의 보호를 넘어서, 우리 역사와 문화유산의 일부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보전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노력은 신안군의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전북도, 2024년도 조사료 생산에 650억 지원

재배면적 최대확보 등의 양적성장을 기반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전북도가 축산농가의 사료비 경감과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24년도 조사료 생산에 국비 212억을 포함 650억을 지원한다.

도는 작년 국제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어려워진 축산농가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2022년 2만4천ha에서 2023년 3만1천ha로 큰폭으로 늘려 552천톤의 조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했다.

올해는 작년 조사료 재배면적 최대 확보 등으로 인한 양적성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우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에 406억원, 기계 장비에 71억원, 종자 구입에 63억원을 지원해 작년보다 11억 증액된 총 650억을 지원하고, 조사료 재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단지 1천5백ha에 추가로 입모종파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 등을 활용한 입모종파종 추가 지원은 동계조사료를 버가 서 있는 상태에서 종자를 먼저 뿌리는 것으로 적기에 파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을철 강수량이 대폭증가하는 이상기온 등에 대비할 수 있고 조사료의 월동과 수확량에 큰 도움이 된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은 축산농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 절감을 유도해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수입조사료 대체를 위한 궁극적인 목표이다."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신안군은 신안군에 분포하고 있는 나한송의 분포 실태에 대한 정밀 기초조사를 수행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가거도 나한송 분포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2023년에 신안군 일원에서 제한적으로 자생하는 나한송에 대한 중요한 종 생물학적 기초연구로 나한송의 생활사와 서식 환경을 이해함으로써 불법 채취 및 서식지 파괴로 인한 대체 서식지



목포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

1월 신청시 할인율 4.5%...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목포시가 2024년도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납제도 신청을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1년분 자동차세를 공제 받고 한꺼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4년에는 할인율이 6.4%에서 4.5%로 변경됐다.

또한 3월, 6월, 9월에도 연납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한 달에 따라 차등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연납신청은 2024년 1월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목포시청 세정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 모바일을 이용하여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따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이전 또는 자동차 말소 일자자를 기준으로 환급된다.

박종배/기자

해남군, 미국 최대 한인마트 'H마트'와 수출 확대 업무협약

해남농수산물식품 미주지역 본격 진출, 전남농수산물 수출 견인 선두주자

해남 농수산물식품이 전라남도 농수산물품 수출의 선두주자로 미국 시장 개척에 나선다.

명현관 해남군수와 권일연 H마트 회장은 현지시각 12일 미국 뉴욕 H마트 본사에서 해남산 농수산물 수출 확대와 상생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확대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해남군 업무협약과 함께 전라남도도 H마트간의 업무협약도 진행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H마트에 대한 입점 및 유통에 대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석순 해남군의회 의장, 박병찬 해남군수협 조합장, H마트 임원 등 관계자들도 참석해 미주 수출에 획기적 계기가 될 이번 협약 체결을 축하했다.

H마트는 권일연 회장이 1982년 설립, 연매출 4조 2,000억원에 달하는 미국내 최대 한인마트로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 124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 캐나다로 수출된 해남배추의 현지 판매처로, 현재까지 400여톤의 배추가 H마트를 통해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해남군은 우수 농수산물 수출제품을 발굴해 H마트에 입점하고, 온·오프라인 H마트를 활용해 농수산물품의 수출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H마트를 통한 전남 농수산물품 수출 1,000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입점제품 다양화를 위한 식품수출기회 구축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군수는 "해남의 농수산물물은 국내

에서는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수출은 이제 시작단계로, 이번 협약을 통해 수출활성화에 큰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며 "미주지역 최대 한인마트인 H마트를 통해 해남 농수산물식품이 본격적으로 미주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고, 수출 일정이 차질이 없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일연 회장은 "한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는 전남 해남의 농수산물품들을 H마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한류 열풍에 힘입어 마트의 대부분 고객들도 아시아권을 넘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남 농수산물식품이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뉴욕문화원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해남군, 영암군이 주관하는 남도김치 담그기 시연과 김밥만들기 등 남도 음식 홍보행사가 열렸다. 한류 열풍에 따른 K-푸드에 관심을 반영하듯 현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요리사, 인플루언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해남 화원농협이 절임배추와 영암 김치양념을 활용해 김치 담그기 시연이 열렸다. 또한 한국김과 쌀, 갖은 재료를 이용한 김밥만들기, 김치양념을 활용한 즉석 샐러드만들기, 남도 발효음식 한상 시식회 등도 진행돼 큰 인기를 끌었다.

한편 명현관 해남군수 등 해남군 수출 확대를 위한 미국 방문단 일행은 뉴욕 도시재생 정책 시찰과 현지 로컬마켓 시장 조사 등 일정을 추가 진행한 후 5박 7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할 예정이다.

최갑문/기자



보성군, 울포항에 이어 군농항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2년 연속 선정

50억 원 확보 ... '잘사는 어촌' 안전 기반 시설 개선 총력

보성군은 지난 9일 해양수산부가 주관한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유형3)'에 '군농항'이 최종 선정돼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2023년부터 해양수산부가 5년간 총 300개 어촌에 3조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유형1 어촌 경제기반(플랫폼), ▲유형2 어촌 생활기반(플랫폼), ▲유형3 어촌 안전 기반 시설(인프라) 개선 등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보성군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중 유형3 사업에 '군농항'을 신청해 약 5:1의 전국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 총 50

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보성군은 지난해에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유형1 사업 공모에 '울포항'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돼 4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군농항은 '어업 공간 확충, 어촌마을 경관개선, 안전한 군농항'이라는 주제로 2026년까지 3년간 ▲군농항 어항 공간 확충, ▲진입로 확장, ▲안전 시설 설치, ▲해송 방풍림 및 마을 안길 시설 조성, ▲군농항 어민회관 및 공동작업장 조성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년 연속 선정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잘 사는 어촌'을 구현하겠다."

라면서 "해양 어촌-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해 어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어촌뉴딜300사업'에 2019년도 2개소(별교읍 상진항, 회천면 동물항), 2020년도 2개소(별교읍 장양항, 회천면 군학항), 2021년도 1개소(득량면 청양항), 2022년 1개소(별교읍 호산항)가 선정됐으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으로 2023년 1개소(회천면 울포항-유형1)가 선정돼 7개소에 총 8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 중이다.

최원영/기자



구례군, 베트남 다낭시 선짜군과 우호교류 협약 체결

전남 구례군은 1월 11일 베트남 다낭시 선짜군청에서 선짜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김수철 군의회 부의장 등 15명의 구례군 교류 방문단과 영지연 주다낭 대한민국 부영사관, 다낭시 인민위원회 당무처장, 선짜군 당위원회 팜 쩡영 씨(Phạm Trường Sơn) 서기관, 군 인민위원회 황선짜(Hoàng Sơn Trà) 위원장을 비롯한 43명의 선짜군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전 공연으로 구례 출신의 국악 예술인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졌고, 부대행사로 두 도시의 사진-미술 전시회가 열렸다.

협약식에서는 자치단체 간 협약 서명과 상호 우호를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기념품 교환 등이 진행됐고, 협약서에는 두 도시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도모하고, 관광, 문화,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으로 두 도시는 향후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사절단 및 청소년 어학연수 지원 사업,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안정을 해결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도시가 함께 더 밝고 역동적인 미래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선짜(Hoàng Sơn Trà) 위원장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두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화답했다.

선짜군은 베트남의 관광 일번지인 다낭시의 6개 군 중 하나로 세계 10대 해변으로 선정된 미케해변과 67m 높이의 해수관음상으로 유명한 린응사(Chùa Linh Ứng, 靈應寺) 등 국제적인 관광지가 위치한 곳이다.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정부 비전 2045'에서 다낭시를 2030년까지 중앙정부 1급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히고, 선짜군 일대를 금융 중심지구로 개발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김성현/기자

경북 농업대전환,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으로 새해 힘찬 출발!

올해부터 농기계보험료 지방비 신규 지원, 농업인 보험 가입 부담 완화

경상북도는 빈틈없는 농업안전망 구축으로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기계종합보험 신규 지원에 따라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과 함께 3대 농업안전망이 구축됨으로써 각종 재해사고 시 농업인들에게 '든든한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 시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일상으로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으로 '96년부터 가입 보험료의 일부(50%)를 국비로 지원해 오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20%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업인들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는 30%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운기의 경우 대당 2만원, 트랙터의

경우 대당 13만원 정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농기계 파손 등에 따른 대물보상뿐만 아니라 농기계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까지 지원하며, 자기신체사고는 특약 가입 시 최대 2억원까지 보

상받을 수 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확산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농작물재해, 농업인안전보험과 함께 올해부터 농기계 보험료의 20%를 신규 지원하는 만큼 많은 농가가 관심을 갖고 가입해달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 재직자 디자인 직무 향상 교육 실시

숏폼 콘텐츠 제작·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디자인 실무 등 교육 프로그램 구성

(재)부산디자인진흥원은 상반기 중소기업 재직자의 디자인 관련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재직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교육 프로그램은 △숏폼 콘텐츠 활용 실무 △디자인싱킹 문제해결법 △애프터이펙트를 활용한 모션그래픽 스테이

터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세페이지 디자인 실무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케팅 콘텐츠 기획 등으로 구성된 최근 산업동향을 반영한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국제 사업제안서 작성법이나 프리젠테이션 디자인과 같은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교육도 마련됐다.

교육비는 전액 국비 지원되며, 부산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교육과정 출석률 80% 이상 시 수료증을 수여한다.

교육 신청은 부산디자인진흥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별 수강신청 가능하다.

한편 부산디자인진흥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동훈련센터로 9년 연속 선정되어 매년 디자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과정 뿐만 아니라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부산지역 디자인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김희태/기자

대구를 대표하는 '모범청소년'을 찾습니다

2월 16일까지, 제36회 '청소년대상' 후보자 공개 모집

대구광역시시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 포상하는 '대구광역시 청소년대상' 후보자를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1989년 첫 포상 이래 올해 제36회를 맞는 청소년대상은 건강하고 올바른 청소년 상(像) 정립을 위해 각 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해 포상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38명(대상 34명, 우수상 105명, 장려상 99명)의 수상자를 배출해 왔다.

청소년대상 후보자는 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구청장, 군수, 학교장, 청소년 관계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이다.

추천 부문은 ▲선행효행 ▲창의인재 ▲푸른성장 3개 부문이며, 선정 인원은 대상 1명과 각 부문별 2명씩(우수상 1명, 장려상 1명) 총 7명이다.

효행선행 부문은 또래와 사회를 위한 봉사나 나눔을 실천하거나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청소년, 창의인재 부문은 과학·문화·예술·체육 등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낸 청소년, 푸른성장 부문은 꿈과 미래를 위한 도전과 개척 등으로 또래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이다.

후보자 추천을 희망하는 기관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추천 서류 등을 대구광역시 청소년과(☎803-5872)에 1월 29일부터 2월 16일까지 공문, 우편 또는 방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는 5월에 개최 예정인 제12회 청소년문화축제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지역 사회에서 귀감이 되는 청소년을 포상해 온 청소년대상의 전통

과 권위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며, "대구를 넘어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이 될 모범청소년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후보자를 널리 추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주민숙원사업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자체 합동설계반 운영

청송군은 신속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8일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자체 합동설계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새마을과장 총괄하에 새마을팀 3명, 읍·면 시설직 공무원 8명 등 총 12명으로 합동설계반을 구성하여 2월 16일까지 6주간 운영할 예정이며, 3월 내 조기 발주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조기발주 계획에 따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은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세천 정비 등 총 161건, 60억 6천만원에 이르는 규모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영농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주를 이루며, 침체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청송군은 자체 합동설계반을 운영하면서 읍·면 시설직 공무원의 기술정보 습득으로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공사

추진 시 견실 시공을 통한 예산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현장조사와 측량 작업 단계부터 마을이장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해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며 "특히 준공까지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부실시공 및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는 등 주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생활민원바로처리반, 군민 생활 속 불편 해결

동절기 방풍비닐 및 단열에어캡 설치사업



영양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관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에서 동절기 방풍비닐 및 단열에어캡 설치사업을 시행 중이다.

생활밀착형 행정을 기조로 민선 7기에 신설한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문고리 수리에서 전통 스쿠터(휠체어) 수리까지 일상 고충을 처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019년 서비스 시행 이래로 군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민원 서비스로 자리잡은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은 '함께 더 멀리'라는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특히 동절기를 대비해 취약계층에 방풍비닐 및 단열에어캡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11월부터 23년 12월까지 110가구에 방풍비닐과 단열에어캡을 설

치했고 아울러 전통 스쿠터, 전기 배선, 보일러, 배관설비와 같은 소규모 수리, 정비 민원은 23년 총 2,518건을 처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군민의 삶 가까이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전해 줄 수 있는 '생활민원 바로처리반'처럼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으로 '희망찬 영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유통 건강기능식품 180건 검사결과 모두 '적합'

지난해 180건 안전성 확인 검사결과 적합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대형마트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180건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확인 검사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는 도내 10개 시군(경산, 포항, 구미 등)의 약국, 대형마트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점에서 판매되는 홍삼, 비타민C, 밀크씨슬 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180건을 대상으로 기능성 성분, 영양성분, 중금속 및 미생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표시 기준·규격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원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과 9월 추석 기간 어르신의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섭취 방법과 구매를 돕기 위해 구미, 영천, 칠곡 지역 노인대학에서 『어르신 대상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4회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건강기능식품별 효능, 보관 및 섭취 시 유의사항,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확인법 등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이 건강기능식품을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이창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연구부장은 "향후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사 항목 확대를 통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어르신들께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섭취와 구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어르신 대상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쇼핑몰 '의성장날', 설 명절 특별이벤트 실시

의성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5일부터 2월 7일까지 24일간 의성군 대표 농·특산물 쇼핑몰인 '의성장날'에서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이벤트 기간동안 의성장날에서 의성군 농·특산품인 의성사과, 의성마늘, 쌀 등을 전 품목 10%부터 30%의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한, 전 품목 무료배송, 신규회원 가입 쿠폰(1만원) 지급 및 구매 후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의성장날은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24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온라인 쇼핑몰 분야에서 지속적인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있다.

이에 힘입어 의성군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농산물 직거래 우수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앞으로도 의성군의 온라인 쇼핑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성군의 우수 농특산물로 고마운 분들에게 마음을 전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영주시, 미취업·미창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20만원 지원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 대상

영주시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격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미취업·미창업 청년들에게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를 연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토익 등 어학 19종, 한국사 등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이다.

지원 대상은 시험 응시일 기준 영주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미창업 청년으로 응시점수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1월 1일 이후 시험에 응시한 경우면 신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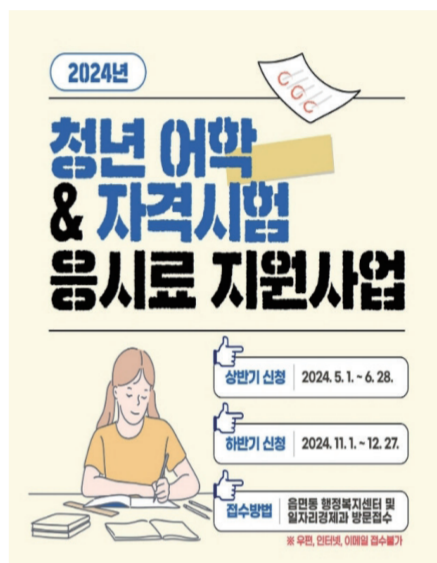
신청은 상·하반기 반기별로 나눠 접수한다. 올 상반기(1~6월) 시험 응시료 지원신청은 7월 5일까지, 하반기

(7~12월) 시험 응시료 지원신청은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응시증빙서류와 결제영수증 등을 첨부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대월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구직 청년들의 자기개발과 취업역량강화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요구를 반영해 다양한 청년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가 지난해 도내 최초로 시행했던 이 사업으로 지난해 지역 청년 200여 명이 160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받은 바 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취약계층 지원하는 상반기 공공 일자리 77명 모집

오는 19일까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자 모집



경주시가 19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공공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모집 대상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53명 △공공근로사업 24명 등 총 77명이다.

신청 자격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으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공공근로 3억원 이하)이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무 기간은 3월 4일부터 6월 30일

까지며, 1일 6시간 근무 기준 약 170만 원(세전)의 급여를 받게 된다.

근무 장소, 근무 시간, 급여,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본 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취업취약계층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업취약계층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청송군, '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 실시

청송군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2달간 관내 과수농가에서 발생하는 과수 전지목 처리를 위한 '2024년 과수전지목 수거 및 처리 사업'을 실시한다.

전정까지의 농업관행(병충해 방지 등) 및 처리부담 등의 이유로 대부분 노천에서 불법소각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을 통해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고, 불법소각에 따른 산불을 예방하며,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한다.

영농부산물(과수전지목) 처리가 어려워 방치해둔 사과나무 가지나 기둥

등을 리벨 수거장 또는 읍·면별 집하장으로 수거·운반·하차하면 무상 처리 가능하며, 일정량 수거 후 파쇄기를 통해 파쇄 후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수전지목, 폐사과 등의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폐기물관리법' 제8조 등에 따른 위반행위이며, 적발될 경우 동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고발 조치된다.

윤경희 청송 군수는 "이 사업을 통해 과수전지목 불법소각과 무단투기가 근절될 바라며 안정적인 수거 체계가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교육 시행



영덕군은 지난 11일 영덕군장애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52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은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소득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며, 참여자들은 각 읍·면사무소나 장애인단체·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주차 계도, 환경 정화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

이날 교육엔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복무규정,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진행됐다.

최대환 가족지원과장은 "겨울철에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참여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유념해 복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교육발전특구 지정 총력

군민의 의지를 담은 협력체 구성으로 교육발전특구 적극 대응



울진군은 1월 11일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신청에 적극 대응하고자 '울진군 교육발전특구 추진 협력체'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사업계획 보고회를 진행했다.

협력체는 순복음 울진군수와 황석수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3개 대학교(영남대, 동국대 WISE 캠퍼스, 경일대학교)교수, 관내 초·중·고등 교육기관 대표, 관내 학교별 대표 학부모를 위원으로 폭넓게 구성하여 울진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공교육 혁신, 지역인재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에서는 공모를 통해 올해 3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지정할 예정이다.

위촉식 진행 후 준비한 기획서(안)을 바탕으로 ▲농특학교 운영방안 ▲자율형 공립고 우수 모델 창출 방안 ▲학교 복합시설 지원사업 방안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기업과 고등학교·대학교의 연계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뽑기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방안 ▲대학교 유치 및 특례 입학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인재 유출방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울진군은 1월 23일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약을 맺고, 2월 중 지방시대위원회 회 심의를 거쳐 3월 교육발전특구 시

범지역으로 지정방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든지 인터넷과 우편으로 손쉽게 제안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를 1월 말까지 진행하여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순복음 울진군수는 "울진은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역연구가 감소하는 지방소멸의 시대에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문화/기자

2024년 영양군 중학생 미국 해외어학연수 시행

영양군은 1월 12일부터 2월 8일까지 겨울방학기간 동안 관내 중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해외어학연수를 시행한다.

지난 2015년 영양군과 미국 투산 교육청과의 국제교류 협약(Tucson Korea Ambassador Program) 체결 후 올해 10회 차에 접어드는 미국 해외어학연수는 미국 애리조나 투산시 다지중학교에서 정규수업을 통해 진행되며, 홈스테이를 통한 미국 현지 가정

문화 체험 및 UCLA 견학 등의 문화체험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미국 투산시 어학연수는 글로벌 마인드와 외국어 능력을 길러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며, 매년 어학연수 시행 후 자체보완 및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또한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이 6월에

투산시 학생들이 영양을 방문하는 교류 행사 때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이어오고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연수를 통해 원어민과의 의사소통 기회는 물론 새로운 외국문화를 체험하고 국제사회의 안목까지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약사항과 같이 어학연수단 선발인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2024년 푸른 하늘을 위한 약속을 함께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38개 사업, 3,747억원 예산 투입

경상북도는 올해 도로 수송, 산업, 생활분야 등 5개 분야 38개 세부사업에 3,747억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로 수송분야 주요 사업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와 노후 경유자동차, 건설기계 감축 전략으로 추진한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예산은 1,742억원으로 전기자동차 10,270대, 수소자동차 386대로 총 10,656대를 보급한다.

친환경 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기자동차 충전기 160대와 도내 최초 수소교통복합기지를 구축한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예산은 736억원으로 조기 폐차 지원에 23,034대,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에 2,452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분야에는 중소기업 477개소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및 교체에 9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강화에 17억원을 투입해 민간 감시단 운영, 공장 등 노후 냉난방기를 대상으로 대기오염 저감시설 540대,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분야 감축을 위한 사업에는 저소득층 대상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1,039대 설치에 6억원을 지원하며, 농촌지역 폐기물 수거 지원을 위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90개소 10억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도 4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숲을 조성하고 가꾸는데 25,674ha, 704억원, 도심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바

람길숲, 지자체 도시숲 30개소 조성에 244억원을 투입한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버스승강장 등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미세먼지 안심공간 16개소, 생활 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 50개소 설치, 버스 전면미세먼지 흡착필터 49대 부착,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미세먼지 저감장치 6대 설치에 26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대응 정책 기반 강화를 위해 대기오염 측정망 2개소 설치와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위한 용역 추진에 3억원을 편성했다.

경북도는 올해 각 분야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만들기는 도민과의 약속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과제로 2024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발생이 잦은 특성이 있어 이 시기에 계절관리제 정책을 강화하는 등 연중 미세먼지로부터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 모집

2.6.까지 참여기업 모집... 친환경 에너지 저장·공급 기자재 핵심기업 집중육성 위해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컨설팅, 사업화 등 연계 지원



부산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레전드 50+는 지역 고유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광역자치단체에서 기획하면, 중기부가 정책 수단을 결집해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시는 '친환경 에너지 저장·공급 기자재 핵심기업 집중육성' 프로젝트를 기획해 지난해 12월 '레전드 50+'로 최종 선정받았고, 이에 따라 중기부로부터 매년 95억 원씩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28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친환경 에너지 저장·공급 기자재 핵심기업 집중육성' 프로젝트는 탄소중립 대응과 저장공급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에너지 전후방 핵심기업을 발굴하고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업별 성장 전략에 따라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자금, 수출바우처, 컨설팅, 사업화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 시내 연료용가스 혼합분리(품목), 저장용기·부품(품목), 연료이송장치 등 4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신청기업 가운데 서류 및 발표 평가 등을 거쳐 참여기업을 최종 확정

할 예정이다. 참여기업 선정계획, 프로젝트 개요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이번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친환경 에너지 관련기업의 성장과 함께, 지역외 인력 유입, 신규 일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도 기대한다”라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 관련 대학 및 유관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2024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원서 접수

대구광역시를 대표할 역량 있는 우수 숙련기술인 발굴의 장(場)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기계, 금속·수송 등 7개 분과 50개 직종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5일까지(5일간) 대구시 일원에서 개최된다.

대구광역시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역의 우수한 숙련기술인들을 발굴·양성함으로써 숙련기술인의 자기진작과 기능 수준의 향상 및 지역 내 기술·기능

개발 촉진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참가신청은 1월 15일부터 1월 26일까지 12일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며, 참가 자격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입상한 사실이 없는 대구광역시 시민(6개월 이상 거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직종별 입상자(1, 2, 3위)는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해 오는 8월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구광역시 대표 선수로 참가하게 되며,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 및 산업기사 해당 종목의 필수 응시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안중근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지역 인재들의 기술과 숙련기술인들의 위상이 더 발전하고 높아질 수 있도록 차별 없는 대회 준비를 하겠다”며, “지역 우수 숙련기술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로 문의하거나 우수 숙련 기술인 종합 포털 사이트 '마이스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근수/기자



상주면 대량항, 2024 어촌신활력증진 공모 사업 선정

사업비 47억 확보...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조성 등 장충남 남해군수,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

남해군은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상주면 대량항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47억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주 대량항에서는 2026년까지 3년간 ▲방파제 연장 및 보강 ▲물양장 조성 ▲파도막이 보강 및 어민안전시설 조성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대표 국정과제로 어촌 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어촌지역 300개소에 총 3조 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유형1),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유형2),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유형3) 등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추진된다.

상주 대량항은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유형3에 해당된다.

까지 경남도 평가, 어항 및 도시재생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수부 서면평가,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 등을 거쳐 11개 시도 151개소 중 31개소가 올해 1월 최종 선정됐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지나해 실천 모친항에 이어 올해도 상주 대량항이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한 어항시설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어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준/기자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공모는 지난해 8월 신청을 시작으로, 11월

예천군, 군민감동 '더 행복한 민원실' 준비 박차

종합민원과 2023년 5개 분야 역대 최다 수상 쾌거

예천군은 군민과 소통하고 모두가 편리한 '더 행복한 민원실'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움벨·외국인 민원 통역 서비스·민원도우미를 지원하고, 민원실 스마트가든 힐링 공간도 마련한다. 또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하여 화요 야간 민원실을 지속해서 운영하고 찾아가는 현장 방문 확대 등 행복 민원실 운영에 적극 노력한다.

또한, 신규 시책으로 민원서비스 문 제점을 개선하고자 민원인 서비스 만족도 및 직원 전화 친절도를 조사하여 친절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더 나은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박상현 종합민원관장은 “앞으로도 군민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발굴하여 군정에 접목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구축을 통해 군민 감동 열린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종합민원과는 안심식당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하고, 경상북도 기관평가에서 민원 행정 분야 최우수상, 지적행정 분야 우수상, 식품·공중 위생 분야 최우수상 등 5개 분야 역대 최다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금자/기자



권기창 안동시장, 새해 첫 읍면동 방문

청룡의 기운으로 새해 출발을 힘차게! 용상동에서 출정식 개최 서예가 백연 선생의 신년화두 대북 퍼포먼스로 힘찬 출발의 의미를 더해 권기창 안동시장, 주민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용 그림 퍼포먼스'로 결의 다짐 3주간 읍면동 업무계획을 공유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 가질 것

권기창 안동시장은 지역 주민과 함께 시정을 공유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청룡의 해 갑진년(甲辰年) 첫 읍면동 방문에 나섰다.

24개 읍면동 중 울해 순회의 첫 방문지는 청룡이 승천한 전설이 깃든 용상동(龍上洞)이며, 그 지명 또한 전설에서 유래한 이곳에서 첫출발을 기념하고자 지난 15일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대북 퍼포먼스와 용 그림 퍼포먼스로 힘찬 출발의 의미를 더했다. 먼저, 서예가 백연 박문환 선생이 안동시 신년화두인 '백절불굴 중령이산(百折不屈 衆力移山)'을 휘호하는 대북 퍼포먼스를 펼쳐 보였으며, 서예의 선과 획을 힘 있게 써내려가며 필묵으로 신년화두의 의지를 굳건히 표현하였다.

이어, 권기창 안동시장은 주민의 삶

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겠다는 의미를 담아 용의 눈과 귀를 채움으로 화룡점점(畫龍點睛)을 완성하는 용 그림 퍼포먼스를 통해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출정식을 시작으로 이번 읍면동 순회는 지역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펴보고 최대한 많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월 2일까지 3주간 추진한다. 지역구 도·시의원, 주요 기관·단체장, 이·통장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를 만나 지역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지난 간담회 중에 건의된 사항을 답변함은 물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민의 생각을 모아 시민 불편 사항을 하나하나 해소하고, 주요 현안 지

역을 점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윤근수/기자



상주쌀연구회, 최고품질 상주쌀 미소진미 재배 선도!

2024년 상주쌀연구회 정기총회 및 당면영농교육(미소진미 교육) 추진

상주쌀연구회가 지난 12일(금), 상주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정기총회와 미소진미 재배 교육을 실시했다.

상주쌀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중인 품목농업인연구회로 2000년에 조직되어 9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도 상주 식량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과 최고품질 쌀 미소진미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이날 '최고품질 벼 미소진미 안정생산기술'을 주제로 미소진미 육종자인 국립식량과학원 이종희 연구관의 교육도 함께 진행되었으며, 상주쌀연구회 이외에도 관내 미소진미에 관심 있는 농업인 및 재배 농가 60여 명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미소진미 품종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상주쌀연구회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최고품질 상주쌀 육성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갑진년 새해에도 상주쌀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술보급과장은 “상주 식량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상주쌀연구회와, 최고품질 쌀 미소진미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농업인분들의 성원

에 힘입어 삼백의 고장 상주 대표 농산물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동현/기자

인생 취미 찾다... 영등포구, 나누고 행복 더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1분기 재능나눔 프로그램 운영, 279명이 수강할 수 있는 17개 과정 운영

영등포구가 개인의 지식과 재능을 이웃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공동체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재능나눔' 프로그램은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주민과 배우고자 하는 주민을 이어주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다. 주제, 교육방식 등의 제약 없이 본인이 가진 지식과 재능, 경험, 삶의 지혜를 나누며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 구는 배움의 결실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을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재능나눔'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은 강의 주제로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어 매분기 참여율이 높았다.

올해 1분기(1월~3월)는 총 17개 과정들로 준비했다. 279명이 수강할 수 있는 규모이다.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전과 목표를 다지고, 몸과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뿐만 아니라 지친 일상 속에서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여가, 문화 강좌도 마련했다.

먼저 새해의 습관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돕는 ▲습관도 습관이다, 직장인들이 퇴근 후 늦은 저녁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저녁 요가 ▲건강 마사지 ▲실용 중국어, 흥미와 재미가 넘치는 ▲신비한 타로 ▲주역 배우기 ▲명상 테라피,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 있는 ▲풍경 수채화 ▲퀼트 공예 ▲아웃도어 만들기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이외에도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대체의학과 이침, 아이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림책 공예 테라피, ▲디지털 만들기 강의도 눈에 띈다.

수업은 대림동에 소재한 YDP평생학습관에서 운영된다.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누리집 내 통합예약 게시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일부 재료비를 제외하고 무료이다. 아울러 구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꾸며줄 재능기부 강사도 상시 모집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나눔을 실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일상을 다채롭게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배움의 기쁨과 삶의 활력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황신/기자



강남의 일상을 여행하려면? '리브(LIVE) 강남'을 펼치세요!

지난해 강남의 문화와 사람 이야기 담은 새로운 콘셉트의 관광 가이드북 인기 폭발... 2024년판 3,200부 제작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도시의 일상적 매력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관광 가이드북 '2024년판 리브(LIVE) 강남'을 지난 10일 발간했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리브 강남은 핫플레이스 중심의 기존 관광 안내서 형식에서 벗어나 트렌드와 역사가 공존하는 강남만의 문화 정체성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일상 여행 콘셉트' 책자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 인기에 발맞춰 2024년도의 더 풍성한 내용을 담아 지난해보다 2,200부 늘려, 총 3,200부(한글판 1,000부, 영문판 2,200부)를 제작했다.

책은 총 세 챕터로 나뉜다. 첫 번째 챕터 '강남을 읽다'는 ▲강남에서 꿈을 꾸는 사람들 ▲디지털로 강남 ▲T.O.P 강남으로 구성됐다. 지난해는 강남 직장인과 토박이들의 인터뷰를 통해 강남의 숨은 매력을 알렸다면, 올해는 강남에서 꿈을 키우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강남의 모습을 담았다.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한식 레스토랑 밍글스의 오너 셰프 강민구, 배우 고정경, 전자거 브랜드 라파의 서울클럽하우스 매니저 최지강 등 8인을 인터뷰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 '디지털로 강남'에서는 빠른 변화와 오래된 것의 가치가 공존하는 강남의 정체성을 담았다. Test Bed, Open, Play의 줄임말인 'T.O.P 강남'에서는 신산업의 테스트 베드이자 다양한 개성과 감각이 모이고 즐기기 좋은 강남의 매력을 소개한다.

두 번째 챕터 '강남에 다가가다'에서 강남을 처음 방문한 사람이 강남을

경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글로벌 축제인 '강남페스티벌'을 비롯해 G-컬처 페스타, 유니투어 등 일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강남만의 축제와 행사를 소개한다. 또한 미술관, 갤러리, 박물관, 공연장 등 대표 문화예술 공간과 대모산 둘레길, 삼성해맞이공원 등 도심 속 자연 힐링공간을 안내한다.

세 번째 챕터 '강남을 큐레이션하다'에서는 공간, 브랜드, 콘텐츠, 맛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 일상을 다채롭게 만드는 강남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한다.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테라로사 포스코센터점·최인아 책방 등 이색 책방,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에서 수상한 예술적인 건축물, 브랜드 대표 매장인 플래그십 스토어와 브랜드 체험공간 등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디저트 로드, 브런치 카페,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노포, 미쉐린 레스토랑, 비건 음식점 등 다양한 맛집을 주제별로 묶었다.

책은 구청, 주요 관광안내소, 호텔 등에 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강남구 관광안내 홈페이지 비짓강남에서 책자 PDF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구는 관광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홍보 채널을 '비짓 강남



(VISIT GANGNAM)'으로 브랜드화해 전 세계 관광객에게 홍보하고 있다. 비짓강남 홈페이지는 차별화된 웹콘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12월 '웹어워드 코리아 2023' 대회에서 공공기관 지역정보 분야 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의 문화 정체성과 스토리를 담은 새로운 스타일의 관광 가이드북이 강남의 일상을 여행하는 듯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남만의 스토리를 담은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함으로써 '일상 속 계속 찾고 싶은 관광도시' 강남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꿈 다이어리' 쓰면서 미래를 꿈꿔요... 서울 중구, 초5~6학년 대상 '내 꿈 찾기' 방학 특강

중학교 진학 앞둔 초 5~6학년 대상 4주 진로 특강 운영

4주 완성 '내 꿈 찾기' 속성강좌
꿈꾸는 나의 미래 비전전수

대상: 초5~6학년
일시: 2024.1.27.(토)~2.24.(토)
장소: 신당누리센터 5층 대강당
비용: 1만원 *유아반 1005-982-7996

1차시 1.27.(토)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진로의 비밀
2차시 2.3.(토) 자유학기제? 맛보기 준비하기!
3차시 2.17.(토) 너의 뇌와 싸우라! 습관의 공부법!
4차시 2.24.(토) 학습태도, 태도가 인생을 만든다

서울 중구가 방학을 맞이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 '꿈꾸는 나의 미래, 비전 전수'를 실시한다. 진로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하는 시기에 학생들이 '꿈'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강의다.

진로·진학 지도 전문가 미래진로연구소 추천진 대표가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진로의 비밀 △자유학기제? 맛보기! 미리 준비하기! △너의 뇌와 싸우라! 습관의 공부법 △습관 태도는 곧 인성, 태도가 인성을 만든다를 주제로 1월 27일부터 4주에 걸쳐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진행한다.

학생들은 매 차시 부여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진로 찾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특히 참여 학생에게 제공되는 '나의 꿈 다이어리'를 잘 활용하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특강 신청은 중구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참가비는 1만원이다.

앞서 중구는 초등학교 5~6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투어, 서울대학생 멘토와 진로 설계, 서울대 전공 탐색 등으로 이뤄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미래를 꿈꾸는 일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이다"라며, "전문가와 함께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보며 이번 방학, 알찬 진로 탐색의 시간 가져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강성원/기자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뵙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들머리보기

들머리보기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성동구, '안심성동! 알기 쉬운 부동산중개 길라잡이' 발간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전문직업인 역량강화 및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

서울 성동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사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부동산 중개 안내서 '안심성동! 알기 쉬운 부동산중개 길라잡이'를 자체 제작해 성동구 소재 운영중인 중개사무소 855곳에 배부를 완료했다.

'안심성동! 알기 쉬운 부동산중개 길라잡이'는 중개사무소 중개사가 최근 부동산 정책 변경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 등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했다.

더불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역량강화와 부동산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실무 담당자의 고민과 노력으로 이번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안내서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개정 법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방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 등 부동산중개사무소 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알짜정보를 실무사



레 위주로 구성되어 보다 쉽게 실제 중개업무에 적용하며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성동구는 부동산중개 길라잡이 책자를 신규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신청 시에도 추가로 교부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급변하는 부

영양나들이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도,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참봉공원, 촉석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경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발해문화유산관,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지생태공원, 영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말레이시아 MZ세대 관광객을 잡아라! 강원도 326만 팔로워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 관계자 초청 강원관광 구석구석 홍보

강원 특화 콘텐츠, 한류, 동계축제, 2024 강원 개막식(1.19.) 관람 등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관광공사, 아시아 최대 LCC 항공사 에어아시아와 함께 오는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말레이시아 인플루언서 및 미디어 관계자 34명을 초청, 대대적인 강원 동계관광 홍보에 나섰다.

이번 팸투어는 방한 관광의 주요 소비자층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동계축제, 한류, 웰니스, 지역 먹거리 등 강원도의 인기 관광콘텐츠를 체험하는 한편,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 관람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개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한류 관광

의 1번지인 춘천 남이섬을 시작으로 삼악산 케이블카, 구봉산 카페거리, 레고랜드를 방문하고 화천 산천어 축제 열음낙시 체험, 흥천 알파카 월드, 원주 웰니스 관광지인 뮤지엄 산, 오코밸리 스키체험, 강릉 사천 딸기 따기 체험과 BTS버스 정류장 등 한류 관광지를 방문하며, 개별관광객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택시를 타고 강릉 중앙시장 등 맛집 체험, 카페 체험 등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겨울관광의 대표 지역인 평창 모나파크 용평의 발발산 곤돌라, 삼양목장의 설경을 배경으로 겨울관광의 인생샷도 남기며 강원 관광의 구석구석을

돌아볼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19에는 평창동에서 개최되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개막식을 참관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팸투어에는 100만여 명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부부 인플루언서인 남편 모하메드 해리스 빈 샤흐룰 아누알(Mohammad Harris Bin Shahrul Annuar)과 부인 누를 아이샤 빈티 할림(Nurul Aisha Binti Halim)을 비롯하여, 현지 방송인이며 90만여 명의 팔로어를 보유하고 있는 하와 리즈와나 빈티 아흐메드 레주안(Hawa Rizwana Binti Ahmad

Redzuan) 등 총 17명의 인플루언서(총팔로워 326만 명)와 현지 미디어 5개 매체가 참가하여 홍보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말레이시아 팸투어팀을 환영하기 위해 15일 춘천 남이섬에서 이들을 직접 맞이할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말레이시아 2030 젊은 층에게 강원 숨겨진 인생샷 장소가 널리 홍보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류팬과 MZ세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확대하고 동남아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태백시, 2024년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 개최

태백시는 오는 2월 3일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주관 태백시 철인3종협회)를 연화산과 대조봉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트레일런'이란 오솔길과 산길이라는 트레일(trail)과 러닝(running)의 합성어로 포장되지 않은 자연의 길을 뛰는 아웃도어 스포츠를 말하며, 코로나 이후 젊은 층을 상대로 상당히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이다.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는 태백의 겨울 기후조건을 활용한 눈 덮인 아름다운 산길을 뒤흔 수 있는 태백 대표 동계 스포츠를 목표로 올해 처음 개최되며, 태백시 대표 축제인 태백산 눈축제 기간에 개최되어 참가자들은 다양한 체험과 경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참가 접수는 2024 태백 스노우 트레일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하는 대회코스(마스터코스(27.18km)-참가비 6만 원/챌린지코스(13.87km)-참가비 5만 원/비기너코스(7.2km)-참가비 5만 원)에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처음 개최되는 대회인 만큼 참가자 전원에게 다양한 기념품과 경품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1년 내내 시골벽적인 사계절 스포츠 대회 유치 방향에 맞춰 다양한 겨울 스포츠 대회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처음 개최되는 태백 스노우 트레일런 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충남여성가족플라자 설계 당선작 선정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 콩코스·순환동선 등 우수 평가

충남도는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축사업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의 응모작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접수된 23개 작품을 대상으로 지난 4일 1차 설계 공모 심사위원회를 열어 5개 작품을 선정했고 9일 2차 심사 등 치열한 토론과 평가를 거쳐 당선작을 최종 선정했다.

당선된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는 2021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8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21년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하는 등 국내 건축계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건축가 그룹이다.

당선작인 건축사사무소 유니트유에이의 작품은 건축물에서 진행될 프로그램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건축적 제안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미래

세대 청소년을 위한 창의적이고 활력적인 활동 공간을 제시해 호평받았다.

특히 가변성이 극대화된 중앙 광장(콩코스·concourse)과 2·3층 공간으로 연결된 입체적 다리(브리지·bridge)는 조형적 재미를 불어넣어 주는 등 전체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해 설계를 거쳐 오는 2025년 착공 계획인 (가칭)충남여성가족플라자는 예산군 삼교을 일원(내포신도시)에 부지비 포함 총 494억 원을 투입, 지하 1층·지상4층(연면적 8400㎡) 규모로 건립할 예정이다.

건물 내 주요 시설은 △청소년 동아리실, 스튜디오, 수다카페 등 다양한 청소년 친화·활동 공간 △여성가족 정책연구실 △스모모일실 등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상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모든 심사 과정을 도 공식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공개해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였다"라면서 "최종 당선작은 다이나믹한 공간 구성으로 청소년의 창의성과 활동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가칭인 충남여성가족플라자의 정식 명칭은 추후 도민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스마트농산분야 2,506억원 투입

전년대비 74억원 증가,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 박차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는 2024년 사업추진 전략을 충북형 스마트농업 실현 및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반구축으로 정하고 5개 분야 73개 사업에 국비, 기금, 도비 등 2,506억을 투입한다.

도 스마트농산과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5개 분야는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확충, 충북형 AI 스마트팜 조성, 스마트농업 육성,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및 공급기반 확충,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 및 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이다.

우선,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 기반확충 분야 주요 사

업으로 농업환경관리 강화 및 탄소농업 기반조성을 위해 토양개량제(45억원), 유기질 비료지원(15억원), 유기농업 자재(2.3억원) 등을 지원하고, 유기농업 생산·소비 기반구축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7억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2억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4.2억원)을 추진한다.

둘째, 충북형 AI 스마트팜 조성을 통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노지스마트농업 시범사업(74억원),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사업(7.3억원), 스마트 축생재배 시설지원(1억원),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0.3억원) 등을 지원하게 된다.

셋째,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및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6.2억원),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육성(0.2억원), 특수미 단지 육성(1.3억원) 등을 추진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소 설치(13.5억원),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11억원), 첨단 농기계 공급(0.7억원) 등 영농효율화 및 기계화 촉진을 도모한다.

넷째, 농업재해 안전장치 강화 및 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50억원),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2.3억원),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16억원), 인삼·버섯 생산시설 현대화(4.5억원) 등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분야는 배수개선사업



(218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74억원), 대구획 경지정리사업(34억원) 등의 추진을 통해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2024년은 AI 과학영농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원년으로 '충북형 스마트팜 육성 및 지속가능한 과학영농 기반구축'을 앞당기기 위해 정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올해 영농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원주시,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강원도 1위, 전국 8위 쾌거

도내 시중 유일하게 전국 10위권 내 진입

원주시가 우리나라 '시' 중에서 지방자치 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한 곳으로 평가됐다.

시는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1,000점 만점 중 640.84점을 받아 전국 75개 '시' 부문 종합 8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해 13개 영역 80개 지표로 통해 지역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10위권 안에 경기도 소재 지역들이 대거 포진된 이번 평가에서 종합 8위라는 고무적인 결과를 거둔 원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 중에서도 유일하게 전국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2015년 28위, 2020년 23위에서 15계단 수직 상승하며 종합 8위를 차지해, 민선 8기 들어 한층 더 강화된 지역경쟁력을 입증했다.

특히, 시는 인적자원, 도시인프라, 공공행정, 지역경제, 인구활력, 경제활력 등의 영역에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지방자치경쟁력 평가에서 거둔 쾌거는 36만 원주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노력해 이룰 수 있었던 성과"라며, "이를 발판으로 원주시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아산시,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의 중요한 한 해 갑진년

2024년 청룡의 기운으로 아산시 사통팔달 도로망 계획하다!!

아산시의 사통팔달 주요 도로망 확충 사업이 "2023년 시민이 선정한 아산시 10대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

이는 도시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기간시설인 도로망 구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산시민들에게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023년 아산시는 교통 분야에서 큰 선물을 받은 한 해였다. 아산시 최초 고속도로인 당진~천안 고속도로 중 아산~천안 구간이 2023년 9월 개통됐고, 아산현충사IC 및 아산IC의 신설로 아산에서 전국 각지로의 이동이 17분 이상 단축되어 시민들의 시간 및 산업 시설 물류비용 절감에 큰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2024년은 서부내륙 고속도로

부여~평택 구간이 연말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태로,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시 남으로는 공주~서천 고속도로 부여 분기점에 연결되어 남부지역 이동이 편리해지고, 북으로는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분기점에 연결되어 서울 및 경기지역 접근성 개선이 기대된다.

그뿐만 아니라, 아산시 최대 속원사업으로 20년간 역점 추진해 온 충무교는 교량길이 295m, 폭33m, 좌우인도 각각3.5m, 양복 6차선으로 총사업비 493억원을 투입하여 2024년 3월 본격 착공된다.

충무교는 아산시 곡교천의 남북을 잇는 아산시 관문으로 주·야간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됐으며 전국 100대 아름

다운 도로인 은행나무길과 더불어 아산시의 또 다른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도로는 복지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아산시 각 지역에 촘촘한 도로 건설로 아산시 어디나 30분이면 소통될 수 있는 30분 소통도시를 공언했다.

아산시는 올 한해 당장면 매곡리 일원에 아산 신도시 연계 교통망인 순환축 공사 준공을 비롯해 당정도 배방을 잇는 당정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 준공 등 크고 작은 많은 도로의 개통이 예정돼 있으며, 이를 통해 아산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교통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원호/기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 'MSG스피어' 방문... 서울 문화·관광경쟁력 강화 모색

중심부 위치한 'MSG스피어' 첨단 시각·음향시설, 초고해상도 압도적 외관 주목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1월 11일 세계 최대 구형(球形) 공연장 'MSG 스피어(Sphere)'를 방문,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시찰하고 K-컬처 발전과 서울의 문화·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구상했다.

스피어는 미국의 대형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회사 MSG컴퍼니(Company)가 23억 달러(약 3조1천억 원)를 들여 조성, 지난해 9월 개관했다.

오 시장은 또 교통 체증 없는 미래형 터널 '베가스 루프(Vegas loop)'와 미디어아트·아트랙션(Attraction)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단지 'AREA 15'도 둘러봤다.

약 12m 깊이, 길이 2.7km의 '베가스 루프'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보링컴퍼니(The Boring Company)가 만든 지하터널로 '하이퍼루프 기술'이 적용된 초고속 대중교통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2021년 조성됐다. 현재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시범 운영 중이다.

2020년 개관한 'AREA 15'는 예술가 325명이 참여한 체험형 예술전시, 몰입형 쇼, 가상현실 아트랙션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관광 경험을 제공하며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오 시장은 11일 오후 6시 15분 '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에 자리한 MSG 스피어를 찾았다. 스피어는 작년 9월 세계적 록밴드 U2의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 11월에는 포틀러원(F1) 그랑프리가 열리기도 하는 등 대규모 공연·행사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내부에는 객석 19,000석이 마련되어 있으며, 모든 객석에는 생생한 움직임을 전달하는 '햅틱(Haptic)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다. 또 16만 개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어 어느 객석에 앉아도 맑은 음질을 청취할 수 있다.

무엇보다 공연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영상을 송출할 수 있도록 내부에 16K 초고해상도 약 1만5천m² 규모의 스크린이 설치돼 몰입감을 극대화, 관람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호텔·카지노·테마파크 등 다채로운 시설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라스베이거스에서 'MSG 스피어'는 개관과 동시에 도시를 압도하는 외관 스크린으로도 이목을 집중시켰다. 높이 112m, 지름 160m 외관을 감싼 약 5만3천m² 스크린이 만들어 내는 환상적인 시각효과로 건축을 자체로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MSG측은 스피어 외부 스크린을 통



해 송출되는 광고로 하루 수억 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 아니라 라스베이거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르면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간접적인 광고 효과 또한 특출히 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관광 미래비전'을 통해 현재 1천만 명을 웃도는 외래 관광객(2019년 기준 1,390만 명) 규모를 2026년까지 3천만 명 이상으로 끌어올려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을 찾는 외래 관광객의 대부분이 문화 체험·관광 등 K-컬처를 경험하길 원하고 있으며, 작년 글로벌 K-팝 공연시장 규모도 전년(592만명) 대비 86% 늘어난 1,100만명,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울시는 편리한 관광 서비스·인프라, 즐길거리 많은 관광도시 이미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특히 음악, 드라마·영화, 음식 등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K-콘텐츠를 활용해 '서울' 고유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 방문 및 관광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고심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K-콘텐츠를 선보일 대규모 공연장 마련이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서울에는 현재 KSPO돔(1만4천명), 고척 스카이돔(1만6천명), 잠실종합운동장(약 5만명, 리모델링 중)

등의 대규모 공연장이 있으며 앞으로 창동아레나, 제2세종문화회관 등이 추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공연·이벤트 등을 활발히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MSG 스피어 방문을 통해 공연·문화 최신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접목된 문화시설과 혁신 디자인이 적용된 랜드마크를 통한 관광 경쟁력 향상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MSG스피어 방문에 앞선 오전 10시 '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 관광청' 스티브 힐(Steve Hill) 대표를 만나 세계적인 비즈니스 이벤트 도시인 라스베이거스의 관광 정책 및 마케팅 전략을 청취했다.

라스베이거스 관광청은 남부 네바다주 관광과 도시 마케팅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으로 CES 행사장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행사 시설, 교통수단(모노레일 등)을 소유·운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매년 다채로운 행사가 개최돼 연간 3천9백만 명의 관광객(마이스 5백만 명)이 유입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약 793억 달러(약 104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보고 있다.

서울시도 최근 국제적으로 마이스(MICE) 영역이 확대되고 융복합화되면서 '관광·마이스 정책 다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특화된 유치 전략 마

련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잠실 스포츠·마이스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와 중간 합의를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은 세계 9위의 국제회의 개최도시(UIA 집계 2022년 순위)이자 9년 연속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글로벌 트래블러 선정)로 선정됐으며, 연평균 백만 명의 마이스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그간 서울의 마이스 중점 영역이었던 국제회의와 더불어 앞으로는 서울시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시회 육성, 중대형 글로벌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행사 유치 등을 통해 마이스 산업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고소득·고지출 특성의 마이스·비즈니스 관광객 맞춤형 시장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최광수/기자



구미시, 美 투자유치·경제교류 활동 마무리...첨단산업 육성에 방점

구미 로봇산업발전 업무협약 체결 및 미주지역 비즈니스·네트워킹 강화

구미시는 1월 7일부터 15일까지 김장호 구미시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덴버, LA(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하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관, 글로벌 분수 디자인 및 투자 타깃기업 방문, 현지 경제단체 교류 활동 개최 등 혁신기술 발전 동향을 확인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표단은 현지시간 8일 특수 분수 디자인 및 시공 전문 글로벌 기업인 미국 WET(Water Entertainment Technologies)사를 방문해 테레사 콜드웰 CDO(최고개발관리자), 안드레아 실바 디자인 책임자 등 기업관계자들과 만나 구미시 소개와 함께 시가 추진 중인 각종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시는 낭만문화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 현황을 설명하고, 구미시만의 특색 있는 랜드마크 조성에 필요한 WET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향후 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9일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개최되는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 관내 소재 대표기업인 LG디스플레이, LG전자, LG이노텍을 차례로 방문하고 혁신기술을 살펴봤다. 국내 로봇분야 전문기업(베어로보틱스, 위로보틱스)을 초청해 신산업 포럼을 개최하고, 이어 국내 로봇분야 선도기업인 LG전자, LIG넥스원, 위로보틱스, 구일엔지니어링 등 4개사와 함께 '구미로봇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하며, 향후 구미를 중심으로 부품 국산화,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에 협약기업들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0일에는 경상북도 유레카관과 공동관을 찾아 지역 참가기업인 에이엘엔티, 포인드, 핵스하이브를 방문해 혁신제품 관람 및 기업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관내 소재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 부스에서 새로운 신기술 발전 동향을 살펴봤다.

박람회 참관을 마친 후에는 미국 현지 기업인, 관계기관과 '구미DAY 네트워킹'을 개최했으며, 구미국가산단 및 지역투자 인프라 등 구미시 투자여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적극적인 기업투자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 자리에서 구미시는 우수한 공업 우수, 전력 등 수도권에 비해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한 점과 반도체,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 인프라 등을 적극 어필했다.

11일 대표단은 덴버로 이동해 투자 타깃기업인 A사를 방문하고 투자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서 김장호 시장은 오랜시간 구미에 투자와 관심을 보여준 기업 관계자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구미가 반도체·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최적지임을 어필해 지역으로 대규모 추가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이에 기업 관계자로부터 향후 투자시 구미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12일에는 LA(로스앤젤레스)로 넘어가 현지 한인 경제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지 기업인, 상공인들과 향후 구미시와의 경제교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고, 미주 대구경북향우회, CES 참가기업 등과 교류활동을 펼치며 구미시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2024년 글로벌 혁신기술 발전동향을 확인하고 구미 첨단전략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이었다. 특히 로봇산업 분야에서 구미시가 관련 선도 기업들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로봇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벨라지오 분수와 같은 최고의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반도체, 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귀국 후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고려 태조왕건부터 이어져온 대게의 본고장 '영덕'

천년의 맛! 영덕대게

STAY영덕 07

경북교육청, 방학 중 학습 공백기 극복을 위한 기초 학력 지원 강화

희망사다리 교실, 대구교대 예비 교사 활용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경북교육청은 겨울방학이 끝나는 2월 말까지 방학 중 학습 공백기 극복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여건상 방학 중에 학습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해, 방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습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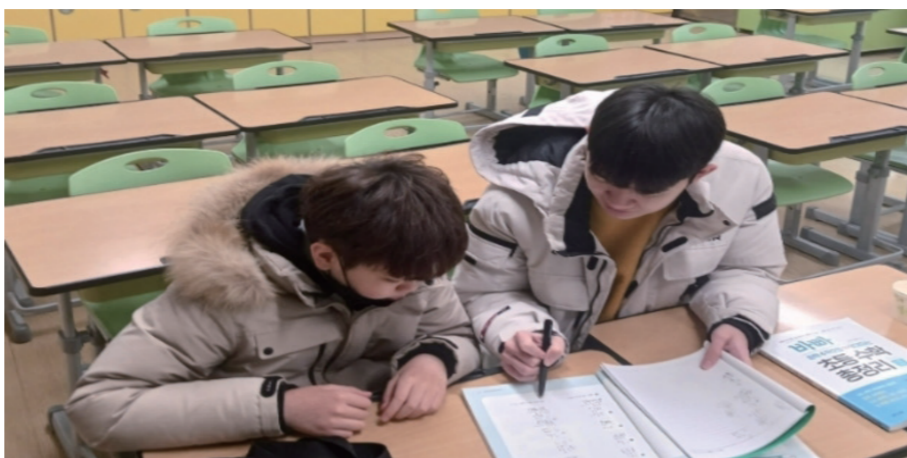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학습 능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방학 중 집중 지도 프로그램 운영 △우리 반 희망사다리 교실 △대구교육대학교 예비 교

사를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멘토링 △학습 코칭단을 활용한 맞춤형 한글 지도 △에듀테크 활용 개별학습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인적·물적 자원과 온오프라인 학습 방법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다양한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방학 중의 학습 공백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기초 학력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교육지원청 “같이 있는 멘토, 가치 있는 멘티!”

의성교육지원청 청렴 후견인제(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월 12일, 2024. 1. 1. 자 신규 공무원 7명과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지방공무원 청렴 후견인제(멘토-멘티) 결연식을 개최했다.

이날 결연식은 신규 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을 조기에 배양시켜 자신감 있는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들과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같이 있는 선배 멘토, 가치 있는 후배 멘티 공무원은 앞으로 1년간 학교

회계, 문서작성, 공사계약, 보안, 청렴 등 다양한 현장 실무 능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배울 것을 다짐했고, 상호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통해 교육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박명호 교육장은 “멘토는 멘티의 잠재력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멘티는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로 청렴한 공직관 확립과 행복 의성교육 실현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나섰다!



지역 유관 기관 연계 고교학점제 운용

경북교육청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학생이 원하는 과목의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교육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과목 개설에 대한 학생 수요는 많지만, 전공 교사가 없어 개설할 수 없었던 과목들을 지역 전문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습·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학교·학생들의 호응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

영양여고와 상주여고의 경우 각각 △

국립멸종위기종복원센터(영양군 소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상주시 소재) 과 연계하여 생물학 전공 박사를 수업 교사로 한 ‘생명과학 실험’ 과목을 개설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함창고(상주)는 △한국 한복진흥원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과 각각 연계하여 ‘패션디자인의 이해’와 ‘문화 콘텐츠의 이해’ 과목을 개설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주여고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연계해 ‘영화의 이해’, ‘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 과목을 개설해 실습·실기

위주의 특화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 지자체, 지역 유관기관 등의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유망·신산업 분야의 과목 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가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콘텐츠를 보유한 ‘학교 밖 교육’ 기관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교육지원청, 정향(情鄕)의 가치로 세대를 넘어 미래를 열다

봉화교육지원청, 2024 봉화교육 설명회 개최

봉화교육지원청은 1월 11일 봉화교육지원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2024 봉화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교(원)장, 학부모 단체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봉화교육지원청은 ‘삶의 힘을 키우는 정향(情鄕) 봉화교육’이라는 비전과 ‘성장하는 나·조화로운 우리·함께 여는 미래’라는 지표 아래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교육과정, 상상하고 도전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교육 복지, 협력하고 소통하는 교육공동체 4가지를 2024 봉화교육 실행 계획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점 과제로 정향(情鄕; 따뜻한 정을 간직한 고향)의 가치를 담은 봉화교육 실현을 위해 정자가 많은 봉화의 지역 특색을 살린 봉화 문화 유산 탐방, K-베트남 벨리 연계 방과후학교 및 문화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향 이음교육, 가치를 잇다’, 예

술적 역량 신장을 위한 ‘우리동네 예술 학교, 세상을 품다’,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SW-AI 교육, 미래를 열다’ 3가지로 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혜자 봉화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교육의 중심은 인성교육이며, 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며, 봉화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을 토대로 삶의 힘을 키우는 정향 봉화교육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미래교육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12일 부산교육 신년 인사회 개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12일 오후 3시 롯데호텔 컨벤션홀 크리스탈볼룸에서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내빈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교육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 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교육 관련 단체·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교류 기회를 마련하고, 부산교육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

이날 인사회는 내·외빈 등 참석자간 인사, 축하 공연, 메세나탑·교육대상·선생님 자랑대회 수상자 시상식, 2024년 부산교육 주요 정책 발표 등으로 진행했다.

특히, 하윤수 교육감은 올해를 ‘온 마음이 나서서 모든 아이를 교육하는 원년’으로 삼고 ▲지역 정주 인재를 키우는 부산 ▲모두를 품는 교육 ▲교육하



기 좋은 학교 등 부산교육 3대 역점과제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정책 발표 후 “올 한해 우리 교육청은 학력, 늘봄,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는 ‘희망 부산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1석 3조

고향사랑 기부제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 16.5%)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 쌀, 사과, 한우, 버섯, 고춧가루, 참·들기름, 전통장류, 오미자액기스, 육포, 유기, 봉화사랑상품권 등



강원도,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안전 개최 지원 주유소 대상 석유품질 특별합동점검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의 안전한 주유 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는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14일간 개최되는 '강원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와 함께 올림픽 개최 도시(강릉, 정선, 평창, 횡성) 인근 주유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선수단 운송 차량 및 숙박시설에 사용되는 경유와 난방용 등유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며, 특히 '흑한기용 경유' 판매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이와 더불어, "가짜석유 유통" 및 "정량미달 석유 유통"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암행차량을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중 불법유통행위 적발 시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리원은 '판매중지'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석유유통을 즉각 중지시킬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평창가스폭발사고와 같은 제2의 석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산업국 남진우 국장

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찾는 선수단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석유유통 환경을 조성하여 올림픽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석유관리원의 석유사업법 위반 단속업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석유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짜 석유유통 및 정량미달판매 의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원/기자

경남도, 설 명절 대비 성수 식품 합동점검 실시

유통 중 계수용·선물용 식품 등 명절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병행 실시

경남도는 1월 15일부터 1월 23일까지 설 명절을 맞아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식품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교차)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시군 합동점검반은 명절에 소비가 많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최근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340개소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



내에 재점검한다.

아울러,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계수용·선물용 식품 등 설 명절 다소비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즉시 회수·폐기된다.

장재현/기자

전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482억

현장 목소리 적극 반영 3개년 종합계획 수립

전라남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안전 보장 등을 위한 제2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 올해부터 3년간 총 4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비율이 어느 지역보다 높고 도시·산간 지역이 많은 특성이 있다.

하지만 고품질의 다양한 사회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환경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주체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부족하다고 판단, 신규사업 13건을 포함 총 5개 분야 30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분야는 ▲보수 수준 향상 ▲일·생활 균형 지원 ▲인권·안전 보장 ▲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 ▲처우 개선 협력 강화다.

전남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타 시·도의 처우개선 우수사례 분석, 도내 유형별 종사자의 의견조사(600명), 직급(계층)별 심층 면접(7회), 전문가로 구성된 처우개선위원회 개최(3회), 현장 의견수렴 공청회(200명) 등을 통해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보수 수준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시군별 준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하고, 부족한 인건비의 보완 수단으로 매월 생활시설 12만 원, 이용 시설 9만 원, 노인요양 시설 5만 원의 특별수당을 안정적으로 지급한다.

일·생활의 균형된 근로환경이 조성되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건강검진 공가제 1일, 장기근속휴가 5~10일, 자녀돌봄휴가 2일, 유급병가 지원 60일 등 다양한 휴가제도를 권장한다. 또 종사자 휴가로 인한 시설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권과 안전 보장으로는 전문번호사의 1대 1 법률 상담 지원, 정신건강 상담, 맞춤형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비상벨·녹음전화기 등 폭력예방 보호장비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전문노무사의 노무분쟁 해결 현장 컨설팅과 종사자 상해보험료(1인 1만 원) 지원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전남형 사회복지서비스 교육망 구축,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1인 5만 6천 원) 지원, 장기근속(30년 이상) 종사자의 도지사 공로패 수여, 가족과 함께하는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 운영, 처우개선 우수시설 인센티브(1백만 원 내외) 지급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처우개선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시설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하고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소속직 종사자를 포함한

민관 소통 프로그램과 장의요양요원 등의 권리보호 및 고충 상담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한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다변화되는 사회복지 수요에 부합하기 위해 더 촘촘하고, 더 두텁고,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어려운 근무 여건을 잘 알고 있다"며 "제2기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통해 현장에서 즐겁게 일하고, 자긍심과 보람을 찾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시설 근무 종사자 모두가 종합계획의 자세한 정보를 인지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시군 복지부서, 전남사회복지서비스원, 전남사회복지사협회,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사회복지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배/기자

의정부시,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연중 단속 실시



의정부시는 깨끗한 대기질을 조성하고자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3월과 12월 총 4개월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점검 기간으로 지정, 매년 과다발생 차량을 단속한다.

운행차의 배출허용기준 및 공회전 제한시간(5분) 준수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노상 단속, 비디오 단속, 공회전 단속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특히, 올해 공회전 단속은 배출가스 열감지차 외기는

도가 측정되는 스마트폰용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과학적 방식을 적용한다.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배출가스 검사안내문을 발송해 자가 정비를 유도한다. 매년 기준이 초과된 차량, 공회전 제한시간(5분)을 초과한 차량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

김보경 기후에너지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쾌적한 생태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울산시, 층간소음 획기적 저감 나선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 기준 대폭 강화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도 도입

울산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 및 중량충격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 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에일린의 1차와 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울산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모니터링)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 및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황규진/기자



희망찬 도약! 청년이 찾는 큰 목표

도약하는 지역경제 감성충만 관광문화 시민행복 맞춤형지

인재양성 미래교육 소통중심 공감행정

목포시



2025 APEC 정상회의 바로, 경주입니다!



경주,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2025년 APEC 정상회의 유치에 도전합니다

세계적인 행사가 가능한
준비된 국제회의 도시입니다

클린에너지 중심 첨단산업도시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합니다

초대된 정상과 대표단을 위한
최적의 경호·안전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균형발전을 실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입니다.

